

 POSRI 보고서

Steel Action Plan, 유럽의 구세주 될까?

정이선 책임연구원, 철강전략연구센터 (ls.chung@posri.re.kr)

이윤희 수석연구원, 철강전략연구센터 (yoonhlee@posri.re.kr)

[목 차]

1. 경쟁력 회복을 위한 EU 차원의 Steel Action Plan 제시
2. EU 철강산업이 당면한 위기감이 Plan 작성을 촉구
3. 문제해결을 위한 Steel Action Plan의 핵심 과제들
※ 1977년 다비농 플랜과의 비교
4. 종합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지난 6월 1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 향상 방안을 담은 'Steel Action Plan'을 발표
 - 유럽 철강사들은 역내 수요의 구조적 감소와 과도한 에너지·환경 비용으로 경쟁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대책을 통해 회생을 기대
 - 이번 대책은 ▶관련 규제 정비 ▶에너지 비용 절감 ▶혁신 기술 개발 ▶수요 촉진 ▶불공정 무역 대응 ▶일자리 지원 등 6가지 분야별 정책을 고루 담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 철강사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음
- 이번에 발표한 Steel Action Plan은 유럽 철강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자인한 결과
 - 향후 유럽의 강재 명목수요가 '20년까지 연평균 1%대의 저성장에 그치면서 서유럽의 공급과잉은 '10년 3천8백만 톤에서 '20년에는 3천9백만 톤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
 - 경영실적 악화로 생존 위협이 증대되고, 고로 휴지와 폐쇄, 철강사업 매각 등에 따른 대규모 감원으로 사회적 비용까지 증가
- 주요 대책의 미비, 자원 확보 문제, 시장 재화의 탄력 부족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미흡으로 유럽 철강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
 - 원가경쟁력은 각종 규제로 인한 비용부담을 줄여준다면 일정 수준 고통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예상되나, 에너지비용 절감과 친환경기술 개발 등은 자원 확보 문제 등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건설산업과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불공정 무역 대응 강화 등을 통한 강재수요 진작은 사실상 직접적인 수요 창출에 기여하지 못할 전망
 - 구조조정은 숙련공 확보 등 실직자 재취업 방안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고, 가장 절실하게 기대했던 설비폐쇄를 통한 구조조정 대책이 빠져있어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
 - 1970년대 유럽 철강업 위기에 등장했던 다비뇽 플랜(Davignon Plan)이 강력한 시장통제와 보조금을 통한 규제 정책이라고 평가 받았던 반면, Steel Action Plan은 거시적이고 장기적 관점의 가이드라인 제시에 머물러 있음
- 유럽밀은 Steel Action Plan보다 강도높은 구조조정으로 생존을 모색할 전망. 이에 구조재편에 따른 진출 기회를 판단하고 유럽 전략을 재정립할 시점
 - Steel Action Plan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유럽 밀들은 경영난 타개를 위해 개별 철강사 차원의 설비폐쇄와 자산 매각을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됨
 - 설비폐쇄와 자산 매각으로 소재조달의 불안감을 느낀 유럽 고객사들이 신규 공급 밀을 찾아 나서고 있어 비유럽 밀에게는 판매향대 등의 기회가 제공
 - 한편, 범유럽 차원의 Steel Action Plan 구상으로 미래의 경쟁력을 도모하듯이, 동북아와 아시아 철강사들도 공생을 위한 실행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

1. 경쟁력 회복을 위한 EU 차원의 Steel Action Plan 제시

□ 유럽의 미래 경쟁력 향상 방안을 담은 'Steel Action Plan' 공개

- 많은 유럽 철강사들이 그 동안 역내 수요의 구조적 감소와 에너지 및 환경비용의 과도한 증가로 경쟁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주장
 - EC는 철강산업은 유럽 성장동력의 한 축임이 분명하며, 기존의 강점에 더불어 혁신활동을 지속한다면 경쟁력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
-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6월 11일 유럽 철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Steel Action Plan을 발표하였음
 - 동 Plan은 1970년대 'Davignon Plan'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유럽 철강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미래 발전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으로, 작년 하반기 이후 오랜 기간의 논의를 거친 끝에 최종 완성되었음

□ 유럽 철강사들은 Steel Action Plan을 통해 회생을 기대

- 이번 Action Plan은 ▶관련 규제 정비 ▶에너지 비용 절감 ▶혁신 기술 개발 ▶수요 촉진 ▶불공정 무역 대응 ▶일자리 지원 등 6가지 분야별 정책을 고루 담고 있다는 점에서 철강사들의 기대감을 반영

(1) 2013년 말까지 각종 규제에 의한 철강업계의 부담 정도를 산출 (Ensuring the right regulatory framework is put in place)
(2) 자동차 및 건설 등 수요촉진을 위한 지원책 마련 (Boosting demand for steel)
(3) 원자재 및 철강재 교역 관련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치 강화 (A level playing field at international level access to raw materials and trade)
(4)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에너지 비용 절감 장단기 지원 방안 모색 (Boosting competitiveness : Affordable energy prices and supply)
(5) 환경친화적 기술 개발 및 혁신적 R&D 촉진 (Boosting innovation)
(6) 숙련공 확보 및 구조조정 용이화 방안 모색 등 구조조정 지원 (Addressing skills needs and easing restructuring)

※ Steel Action Plan의 원문 제목은 다음과 같음.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regions ; Action Plan for a competitive and sustainable steel industry in Euro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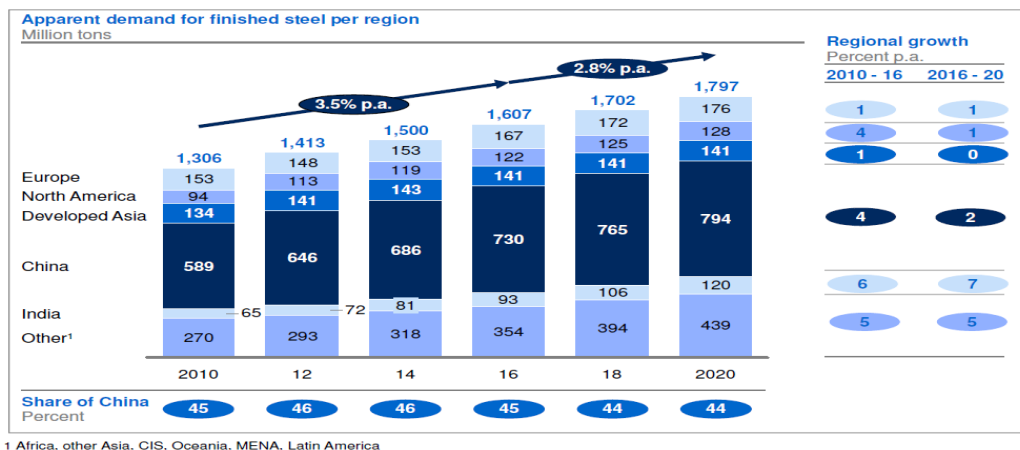
- EC는 앞으로 1년간 실행방안의 구체화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유럽 철강업계들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

2. EU 철강산업이 당면한 위기감이 Plan 작성을 촉구

□ 유럽 철강산업의 최대 난제는 구조적 공급과잉 고착화

- 유럽의 강재 명목수요는 '10년 1억5천3백만 톤에서 '20년 1억7천6백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연평균 1%대 성장에 그쳐 실질수요 확대는 제한적일 전망
 - '08~'12년 유럽의 강재 명목수요는 마이너스 3.4% 성장률을 기록하여, 세계 철강산업의 평균 성장률인 4.8%를 크게 밑돌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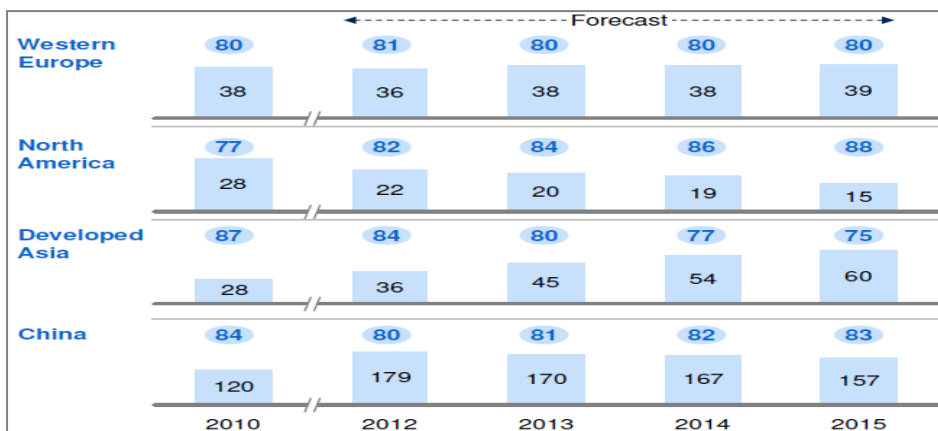
<유럽의 철강 명목수요 전망(백만톤)>



자료: OECD Steel Committee 발표자료 재인용(2013.6), AISI; McKinsey

- 서유럽의 공급과잉은 '10년 3천8백만 톤에서 '12년 3천6백만 톤으로 다소 줄어드는 듯 했으나, '20년 3천9백만 톤까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전세계적으로 과잉설비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유럽지역은 전체 과잉설비의 약 15%를 차지. 최소한 '15년까지는 현재 수준의 과잉설비 규모가 유지될 전망으로 일본과 중국보다는 작지만 북미보다는 현저히 많은 수준

<철강 공급과잉 규모 비교 (백만톤)>



자료: OECD Steel Committee 발표자료 재인용(2013.6), AISI; McKinsey

주: 1. Overcapacity=Effective capacity-production 2. 원내 수치는 Capacity utilization(%), 휴지설비는 제외

□ 핵심 수요처인 자동차산업의 유럽 내 판매량도 지속적으로 감소

- '07년 이후 승용차 판매가 무려 20% 이상 줄어 '12년 1,252만대에 그쳤고, '13년 상반기는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7% 감소하는 등 자동차 업계에서는 EU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 중
 - Peugeot는 파리 인근 공장을 폐쇄하고 6천명 이상의 직원을 감축하기로 결정. GM은 '99년부터 US\$ 160억 손실을 본 독일 Opel공장 폐쇄 계획을 발표
 - Fiat CEO는 미국이 금융위기 당시에 정부 주도로 자동차사 구조조정을 시행한 것처럼 EU도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

<유럽지역 승용차 판매 현황>

(만대,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1~6)	
							판매	전년비
VW	316.7	304	294.8	293.8	316.6	306.2	159.9	-3.7%
PSA	205	186.4	188.6	184.4	168.3	146.6	71.7	-13.3%
Renault	138.3	128.6	134.8	141.2	129.8	105.3	55.5	-4.8%
Ford	170.9	145.7	150.3	110.8	107.7	94.8	47.9	-9.8%
GM	165.1	141.3	128.2	118.8	116.6	100.6	51.1	-11.0%
Fiat	125.2	118.3	125.5	105.5	94.5	79.8	40.9	-10.3%
기타	479.1	449.7	430.2	422.5	422.3	418.6	216.7	-4.3%
전체	1600.3	1474	1452.5	1376.9	1358.2	1251.8	643.7	-6.7%

자료: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주: 기타는 현대, 기아, 도요타, 닛산 등이 포함

□ 최근 경영실적 악화와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생존 위험이 급증

- ArcelorMittal, TKS 및 Tata Steel 등은 유럽 재정위기 속에서 유럽철강 사업부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
 - ArcelorMittal의 유럽 판재류사업부(FCE)는 '11년 3분기 이후 8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였고, '12년 조강생산량도 '11년대비 10%나 감소
 - TKS Europe은 '12년 EBIT이 전년대비 82% 급감했고, Tata Europe도 '12년 EBITDA가 전년대비 98% 하락하였음

<유럽 철강사의 경영실적>

	(백만톤, 백만불)	'11 1Q	2Q	3Q	4Q	'12 1Q	2Q	3Q	4Q	'13 1Q	2Q	2011	2012	13.상
AM FCE	조강생산량	8	8	7	7	7	7	7	6	7	7	30	27	15
	영업이익	106	245	(106)	(569)	(284)	(154)	(385)	(2,900)	(59)	(198)	(324)	(3,723)	(257)
TKS Europe	조강생산량	3	3	3	3	3	3	3	3	3	3	13	12	6
	EBIT *	300	322	253	102	30	52	63	30	9	62	977	175	71
Tata Europe	조강생산량	4	4	4	4	3	4	3	3	3	4	15	13	7
	EBITDA	306	343	99	(153)	26	73	(7)	(78)	72	91	595	14	163

자료: 각사 IR 자료 종합 * 주: TKS Europe 실적은 백만유로 기준

- ArcelorMittal은 고로 폐쇄 결정, 장기간 휴지와 감산을 지속하고 있고, TKS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철강사업 매각을 추진 중에 있음
 - ArcelorMittal은 이미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영국에 있는 고로 15기 이상 휴지 결정. 철강사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고로 휴지와 폐쇄 추진
 - TKS는 북미 철강사업부문을 상하공정 모두 CSN 등에 매각하기 위해 인수 대상자와 가격을 협상 중에 있음. 유럽 사업부도 최근 스페인 TK Galmed 공장의 CGL을 가동중단하고 폐쇄 수준에 들어감
 - Tata Steel도 Corus에서 인수한 유럽사업부분(Tata Steel Europe)의 재매각을 검토하였으나 실제 협상이 원활하지 못하자 고심 중에 있음

< ArcelorMittal 고로 폐쇄 및 휴지 현황 >

폐쇄 시기	대상 자산	자산최적화 방식
2011.1	폴란드 Dabrowa 제철소(220 만톤)	인원감축 및 휴지
	폴란드 Krakow 제철소(50 만톤)	
2011.1	체코 Ostrava 제철소	10% 감원 및 휴지
2011.12	루마니아 Gallati 제철소(390 만톤)	3 고로 가동 중단 및 감원(1,100 명)
2011.4Q	스페인 Madrid 제철소	전기로 무기한 폐쇄
2012.1	벨기에 Liege 제철소(310 만톤)	고로 2 기/소결/코크스/열연/냉연/아연도금/전기도금공장/자동차향 finishing line 폐쇄
2012.1	프랑스 Florange 전기로(280 만톤)	상공정 폐쇄
2012.1	스페인 Sestao 제철소	전기로 2 기 휴지기간 연장
2012.1	남아공 아르셀로미탈(AMSA) 공장	외판재 생산 중단, 내판재 생산으로 전환
2012.1Q~	룩셈부르크 Schifflange 제철소	Billet 전기로/연속주조설비 무기한 휴지
2012.1Q~	스페인 Aviles 도금라인	건설용 HDG 라인 휴지기간 연장
2012.7	이탈리아 La Magona 제철소	공장 휴지
2012.11	네덜란드 Alkmaar / Groningen	후판가공 서비스센터 영구 폐쇄
2013.10(예정)	스페인 Gijon 코크스공장(230 만톤)	영구폐쇄 및 제철소 고로 감산휴지 연장

자료 : SBB외 각종 기사 모음

□ 공장 폐쇄와 휴지에 따른 대규모 감원 등 사회적 비용까지 증가

- 유럽 각지에서 공장 폐쇄와 휴지가 잇따르며 '07년에서 '11년 사이 철강 인력이 10% 이상 감소하는 등 유럽 내 심각한 사회적 비용 초래
 - '12년 기준 36만9천여 명의 철강산업 종사자들 가운데, 최근 4만여 명이 철강업계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었음
 - ArcelorMittal은 Florange 제철소 영구폐쇄에 따른 유럽 판재류사업부 인력 감축안('12년 7월)을 제시하며 3천~5천명의 감원 가이드 라인을 밝혔음
 - TKS도 '15년까지 'Best in Class-reloaded(BiC)'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사업 재편에 따른 2천명 감원과 설비폐쇄로 인한 1,800명의 추가 감원을 밝혔고, Tata Steel도 경영 정상화를 위한 원가절감과 인력 감원 실시 중. 영국 내 제철소 대상으로 희망퇴직 형태로 인력 감축

3. 문제해결을 위한 Steel Action Plan의 핵심 과제들

□ 규제정비, 정책 지원, 기술 개발을 통한 원가경쟁력 강화 방안

○ 유럽 철강사들은 타 지역 철강사들에 비해 전기료와 환경비용의 과도한 부담으로 원가경쟁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유럽철강연맹은 탄소배출권 제도가 본격화되면 '13년부터 '20년까지 유럽철강업체가 부담할 비용이 60억 유로 이상 될 것으로 예상

※ 이탈리아에서는 '12년 9월 환경 오염을 이유로 ILVA 제철소의 고로 2기 가동중단 명령을 내릴 정도로 환경보호에 대한 압박이 심한 상황

① 과도한 부담을 제거하기 위한 각종 규제 정비

○ 규제 정비는 각종 규제에 의한 철강업체의 비용 부담을 종합 측정하여, 적정수준 이상의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경쟁력에 기여하는 것이 핵심

- EC는 2013년 말까지 각종 규제에 EU 철강사들이 부담하고 있는 총비용(cumulative cost assessment)을 측정하여 결과를 발표할 예정
- 규제가 비용측면에서 철강업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불법적인 부가세 부과나 침해 행위 등을 제거하여 경쟁력 발판 마련을 기대

○ 현재까지의 점검 결과를 보면, 정상적인 상황일 때는 규제 비용이 비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은 아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규제로 인한 비용을 줄여준다면 일정수준 고통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결론

- 예를 들면, 2009년의 경우 규제로 인한 누적 비용은 EBITDA의 120.7% 수준이었음.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러한 정부규제로 인한 비용 부담은 매우 치명적임
- 현재 규제에 따른 철강산업의 비용 부담은 에너지, 배출권 거래제, 환경비용 등을 포함하여 톤당 평균 14.49유로 수준임

<철강 산업에 대한 Cumulative Cost Assessment>

	BOF	EAF	철강산업 평균
ETS*	0.74	5.85	2.79
Energy	3.67	8.12	5.46
Environment	7.52	4.14	6.16
Product (REACH)	0.10	0.05	0.08
Total	12.03	18.16	14.49

자료: European Commission('13.7), CEPS's-Table: Typical cumulative cost of regulation('01-'11, €/톤)

* 주 : Emission Trading Scheme

② 에너지 비용 절감 위한 장단기 지원 방안 모색

- 철강산업은 에너지 비용이 조업원가의 40%를 넘는 에너지 다소비산업으로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이 경쟁력 저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
 - 유럽 철강산업의 경우 '05~'12년 기간 중 전기요금이 평균 38% 인상되어, 미국 전기요금의 2배에 달하는 등 경쟁력이 떨어진 상황
 - 또한 미국 철강산업이 shale gas를 활용하면서 에너지 개발환경도 좋아지고 있어, 유럽 철강산업의 경쟁력은 점점 더 약화되고 있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높은 전기료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과 높은 에너지 비용을 극복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지원책을 제시
 - 에너지 다소비산업에 적절한 에너지 절감방법을 고민하고자 에너지비용 관련 조치를 점검하고 에너지 가격에 대한 각국 조치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4년 2월 유럽연합(EU) 회원국 정부 정상들의 모임인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에서 토론할 예정
 - 단기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지원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 ETS의 에너지 가격에 대한 영향 분석 및 2030 Climate Policy Framework에 대한 제안서 개발, 전기요금 장기 계약방안 등을 제시
 - 장기적으로는 '15년까지 기후변화협약 관련 걱정수준의 감축목표를 협상하고,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 마련 및 에너지 다소비산업 R&D&I 프로젝트에 ETS Revenue 배정을 고려

③ 에너지 및 환경 관련 기술개발 강화

- 환경친화적 기술개발 및 혁신적 R&D 촉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추진
 - ULCOS(Ultra-Low Carbon Dioxide Steelmaking)와 같은 CO₂ 저감 기술과 상공정 연구 프로젝트, 혁신적 원료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Pilot project 지원 예정
 - '14~'20년 기간 중 'Horizon 2020' 프로그램을 통해 Research Fund for Coal & Steel 연구 프로젝트에 2억8천 유로 투자방안 모색: Research 단계 뿐만 아니라 Up-scaling & piloting 단계에도 Financial support 집중 예정
 - Recycling을 포함하여 원재료 Value Chain에 대한 혁신적 방안을 모색하고 원재료에 대한 EIP(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추진
- EC는 회원국에게 R&D&I 프로젝트의 재원 확보를 위해 연구자금 배정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을 포함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수립을 요청
 - 유럽투자은행에는 다양한 철강프로젝트에 대한 장기적 재정지원을 요구

□ 수요 산업 및 공정 무역 지원을 통한 강재 수요 진작 방안

○ 핵심 수요산업인 자동차산업과 건설산업 수요촉진을 위한 지원책 마련

- ‘CARS 2020’을 통해 대체연료 자동차 수요 촉진으로 철강수요 확대 기대: EU의 CO₂ 규제에 유럽 자동차사는 클린 디젤과 전기차 시장을 선도. 철강재의 Application을 중시함으로써 초경량, 초고강도강 채용 증가
- ‘Sustainable Construction’ 프로젝트를 통해 건설분야의 에너지효율 제고와 강재 활용 증대 계획

○ 중국 등 非 EU 철강생산국의 무역장벽과 불공정 행위를 언급함으로써 EU 철강사들의 공정한 무역 지원

- ArcelorMittal의 Mittal회장은 유럽 제조업의 회생을 위해서는 범람하는 저가 중국산에 대한 EU 차원의 수입 방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유럽 철강업체의 보호무역 강화 요청은 더욱 거세질 전망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제 3국 시장 진출 시 불공정 무역행위 방지와 FTA 협상 시 사전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경쟁을 통한 수요활성화 지원 예정: 반덤핑 현황 Update를 통한 Trade Defense 강화
- 철강 원료의 경우 EU의 스크랩 사용량 증가와 관련하여 올바른 교역질서를 확립하고, 스크랩 불법 수출에 대한 제한 조치를 계획: 스크랩 시장 모니터링, Coking Coal의 Critical Raw Material 리스트 포함 고려

□ 구조조정 및 공급과잉 해소 방안

○ EC는 설비 폐쇄와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문제가 속출하자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업계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공동 정책안에 반영

- ArcelorMittal이 벨기에 Liege 제철소의 영구 폐쇄에 이어 프랑스 Florange 제철소 영구 폐쇄까지 결정하자 노조들이 크게 반발하고 동요

○ 우선 고용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숙련공 확보와 구조조정 용이화 위해 재취업/재교육을 위한 공동기금(European Social Fund) 사용 가능성 타진으로 접근. 동 Action Plan에는 생산능력 조정 방안은 포함되지 않음

- 최근 유럽 철강업계에서 약 4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구조조정 니즈와 생산능력 조정 등을 조사하여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
- 고용 프로세스 강화, European Skill Council 설치 독려, Life-long-learning 정책 지원 등 직업 교육 및 취업 지원에 대한 정책 수립
- 실직자의 재취업 및 재교육을 위한 European Social Fund/European Globalization Adjustment Fund 활용을 검토할 예정으로 발표된 정책안 가운데 유일하게 구체적 금전적 지원 방향이 도출된 분야

※ 1977년 다비농 플랜과의 비교

□ 1977년에도 EC 차원의 공동 대응책을 마련한 전례가 존재

- 1977년 초 유럽 각국 정부들은 방대한 과잉설비로 인한 철강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최초로 공동 대책을 강구한 바 있음
 - 다비농 플랜(Davignon Plan)에는 과잉설비에 따른 철강재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생산량 쿼터 및 최소 가격 설정, 노후설비 폐쇄 등을 위한 보조금 지급, 유럽철강연맹에 의해 형성된 카르텔 인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 당시 EC는 공동 대응 차원에서 R&D와 환경 및 설비폐쇄 경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허용하였는데, '75~'85년 사이에 유럽 각국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 규모가 448억 달러에 달하였음

□ 다비농 플랜은 설비폐쇄 등을 위한 막대한 보조금 지급이 핵심

- 다비농 플랜과 비교해 볼 때 이번 **Steel Action Plan**은 유럽이 안고 있는 방대한 과잉설비에 대한 타개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태의 핵심에서 벗어났다는 평가
 - Steel Action Plan은 유럽 철강산업의 체질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는 다비농 플랜과 궤를 같이 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보조금 지급 금지를 합의한 상황이라 직접적으로 문제 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찾기 어려울 것임

< Steel Action Plan과 Davignon Plan 비교 >

	Steel Action Plan	Davignon Plan
배경	과잉설비에 따른 공급과잉, 수요감소에 따른 경쟁력 하락, 구조조정으로 인한 높은 실업발생	과잉설비에 따른 철강재 가격하락, 유럽 철강산업 글로벌 경쟁력 하락
시기	2013년 6월 발표, 향후 1년간 구체 실행안 수립 예정	1977년 초 발표 이후, 1986년 재논의를 통한 신규 정책안 수립
대응 방안	- 규제정비, 미래 수요 창출, 무역, 에너지 개발, 기후변화 정책, 혁신적 개발, 일자리 창출 및 기술교육 지원 분야별 정책안 - 실행의 세부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태	1차(1975년~1985년): 생산량 제한, 노후 설비폐쇄, 카르텔 인정, 기업영업지속 보조금 지급 등
		2차(1986년 이후): 보조금 제공 범위 제한, 설비능력 삭감계획 결정, 세제우대 등
보조금 대책	- 고용안정: 실직자의 재취업, 재교육 위한 Fund 활용방안 논의 - 환경 및 R&D: 장기적 기술개발 지원 계획,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비용 축소 관련 계획 수립	환경, R&D, 설비폐쇄 관련 작업에 보조금 지급, 세제우대 정책
Overcapacity 대책	구조조정 계획 조사 중이나, 설비능력 삭감에 대한 정책 누락	설비능력 삭감 계획 공동 결정

4. 종합 시사점

□ Steel Action Plan의 외형에 비해 실효성에 대한 기대감이 낮음

- 다방면의 종합 계획(Plan)을 담고 있으나 실행 계획(Action)이 약하여, 유럽 철강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단번에 풀어내기는 한계가 있을 것임
 - Steel Action Plan은 이미 나왔던 정책의 종합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번에 제시한 지원방안은 재취업 인력을 위한 Fund 활용이 유일하여, 강력한 실행방안이 뒷받침되지 못한 힘빠진 정책에 머물 가능성이 높음
 - 지난해 설비폐쇄에 대한 공동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때와는 달리, 간절히 기다렸던 공급과잉에 대한 구체 방안이 빠져있고 설비폐쇄와 관련된 EU 차원의 입장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

- **Gordon Moffat Eurofer** 총재는 **Steel Action Plan**이 경쟁력 강화의 계기는 되겠지만 실제로 철강사가 혜택을 받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언급
 - VoestAlpine 회장인 Wolfgang Eder는 EU 공동기금을 활용한 철강산업의 구조조정 촉진정책은 사회적 비용을 덜어주는 획기적 방안이 되겠지만, 유럽의 과잉설비를 유지하는 구실이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
 - ArcelorMittal 유럽판재류사업부 CEO인 Himpe도 앞으로 정부와 철강사간의 추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
- **Steel Action Plan**은 경영실적 악화로 인한 설비폐쇄와 인력 구조조정 등 유럽 철강사들이 직면한 존재 여부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
 - 철강과 수요산업간의 선순환 구조를 고려한 정책안으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과 에너지 정책과 기술 개발 지원 등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

□ 개별 철강사 차원의 설비폐쇄와 자산 매각이 가속화될 전망

- 기대를 걸었던 **Steel Action Plan**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유럽 밀들은 경영난 타개를 위해 처절한 원가절감과 설비폐쇄는 물론 비수익 자산 매각을 서두를 것이고, 강도 높은 인력 구조조정도 추진해 나갈 전망
 - EU집행위원회는 고위급회담을 통해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7월 1일 열린 OECD Steel Committee가 별다른 성과없이 마무리된 점을 볼 때 이제는 제 각기 살아갈 방안을 찾아야 할 입장
 - ArcelorMittal은 Floranage 제철소와 Liege 제철소의 영구 폐쇄와 관련된 국유화 논란과 인력 구조조정 등을 일단락 짓는데 주력할 전망이며, TKS는 미주사업 매각과 유럽사업의 조정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유럽 밀의 생존위기는 비유럽 밀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음

- 설비폐쇄와 자산 매각으로 소재조달의 불안감을 느낀 유럽 고객사들이 신규 공급 밀을 찾아나서는 등 구매전략을 신속하게 바꾸고 있음
 - 특히 자동차사들은 안정적인 소재 공급원 확보를 위해 ‘Only 유럽 밀’을 고수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非 유럽밀’로 구매처를 확대하는 움직임
- 비유럽 밀 입장에서 유럽시장은 주력 수출시장도 투자지역도 아니었음. 유럽 철강산업의 생존위기에 따른 구조재편이 비유럽 밀에게 주는 기회를 판단하고 유럽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유럽향 판매확대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안정적인 고객기반 확보 가능성, 경쟁력있는 물류기반 구축 가능성 및 반덤핑 제소 등 통상 Risk 점검
 - 판매확대를 위한 기술 지원과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를 위해 특화제품과 고유시장을 보유한 유럽내 강소 철강사와의 협력 기회도 적극 발굴
 - 나아가 구조조정 이후 매물로 나오는 철강자산이 있다면 인수/합병의 타당성을 조사하거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시너지 제고 방안 검토

□ 한편, 동북아와 아시아 차원의 공동 대응방안 마련도 서둘러야

- 동북아를 포함한 아시아 철강산업도 EU와 유사한 고민을 안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공생을 위한 협력 보다는 독자적인 생존방안 모색에 주력
 - 저성장기 진입에도 여전히 설비확장을 지속하고 있고, 초과공급 확대로 수출 대상량이 늘면서 역내 국가간의 교역 불균형이 심화되는 양상
 - 공급과잉의 심각성은 모두 인식하고 있으나 설비감축 방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뚜렷하여 이를 주도할 국가나 철강사가 부재
- 범유럽 차원의 **Steel Action Plan** 구상으로 미래의 경쟁력을 도모하듯이, 동북아와 아시아 철강사들도 공생을 위한 실행 방안 마련이 절실
 - 설비감축 등 구조조정 방안은 물론 기술협력, 원료, 환경/에너지와 같이 공통의 약점을 보완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다수 존재
 - 협의체로 발전하기 위해 부문별 Working Group 및 아시아 철강 포럼 등을 운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자간 민관 협의체에서 아시아 통합 민관 협의체로 범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필요

[참고 자료]

[기업정보 및 재무실적 자료]

ArcelorMittal Annual Report, Financial Report, 2011~2013

Tata Steel Annual Report, Financial Report, 2011~2013

TKS Annual Report, Financial Report, 2011~2013

[학술자료]

경제본부, 『한미 철강 통상마찰』, 포스코경영연구소, 1995.

[홈페이지 자료]

OECD 홈페이지 < <http://www.oecd.org> >

ArcelorMittal 홈페이지 < <http://www.arcelormittal.com> >

Tata Steel 홈페이지 < <http://www.tatasteel.com> >

TKS 홈페이지 < <http://www.thyssenkrupp.com/en> >

SBB 홈페이지 < <http://www.steelbb.com/> >

[기타자료]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REGIONS', 2013

OECD Steel Committee, 'The European Steel Action Plan', 2013

OECD Steel Committee/ McKinsey & Company, 'Competitiveness and challenges in the steel industry', 2013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유럽 자동차 판매동향', 2012~2013